

러시아산 킹크랩 2년만에 왔어요

러시아 조업 완화 생산량 늘어 물량 확보 이마트 15t 1만 5000마리 들여와 선봬

최근 킹크랩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통가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골든크랩' 등의 대체재를 찾다가 하면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2일 이마트는 2년만에 러시아산 킹크랩을 15t, 약 1만5000마리를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킹크랩은 깨끗하고 수온이 차가운 오호츠크해역에서 잡히며 크기만큼이나 살이 꽉 차 있고 육질이 좋기에 식감이 좋기로 유명하다.

이마트가 러시아산 킹크랩을 대규모로 들여온 것은 2012년 10월 이후 2년만이다. 지난 2012년 러시아 킹크랩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킹크랩 조업을 허가해주는 쿼터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조업량이 크게 줄어 사실상 국내에서는 러시아산 킹크랩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동안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산 킹크랩이 선보였지만 항공운임료 등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 러시아산 킹크랩에 비해 1.5~2배에 육박할 정도로 비쌌다. 하지만 올해 5월 들어 킹크랩 조업 허가가 완화되면서 조업량이 늘어났다. 이마트측은 러시아 선단으로부터 대규모 물량 확보에 나서 2년만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통업체가 러시아산 킹크랩을 벌써부터 선보인 것은 최근 몇 년간 수산물 소비 선진국화로 랍스터·대게 등 고급 갑각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선보인 직소싱 활랍스터의 경우 10만마리가 조기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이젠 대표 수산물로 자리잡았는데, 지난해 이마트 고급갑각류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8.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최초로 미국산 활(活) 골든크랩을 판매해, 대박을 냈다. 물 안에서 보면 금색을 띠는 골든크랩은 다리, 몸통 살이 가득하고 계장 맛이 고소해 '버터크랩'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마이애미 산지에서 항공 직송했으며 가격은 1마리(900g 내외)에 2만9900원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킹크랩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활 랍스터, 러시아산 활 대게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마리당 각각 1만5900원, 2만9900원에 선보였다.

이와관련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랍스터, 킹크랩 등 수입 수산물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유통업체들의 대체 산지 개발 노력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 간 전국 전 점포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3만9800원(1마리·1.3kg내외)에 판매했다. 시중 소매가가 1kg당 4만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시중 가격대비 25% 가량 저렴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이마트 용산점 수산물코너에서 모델들이 살아있는 킹크랩(러시아산)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 제공)

퇴직후 필요한 월 생활비

50대 부부 300만원

60대 부부 260만원

퇴직 후 50대 부부와 60대 부부에게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각각 300만원, 260만원 정도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 리포트 11호'에 따르면, 60대의 2인 이상 가구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258만원이다. 이 연구는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60세 이상 가구의 월 지출액은 164만원으로, 70대 이상과 1인 가구, 중산층(소득 총위값의 50~150%)의 평균 지출액인 206만원 미만을 소비하는 가구를 포함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여기에서 60대의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206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만 추렸고 소득 수준 최상위 25% 안에 드는 가구는 제외했다. 그 결과 소득 상위 25~50% 수준으로 추려진 60대 2인 이상 가구의 생활비는 258만원이었다.

50대 부부에 대해서는 60대 부부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고 성인 자녀와 동거 기간이 더 긴 점이 고려됐다. 이 가운데 자녀와 관련한 비용은 성인 자녀 1명과 동거하면 생활비가 매년 98만원 증가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 2명과 3년 더 동거하는 경우의 추가 생활비로 계산됐다. 그 결과 50대 부부의 생활비는 60대의 258만원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증가 분인 16만원과 자녀와 관련한 추가 지출 24만원을 더해 298만원으로 산출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적정 은퇴 생활비는 은퇴 초기의 건강한 부부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비용으로,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보내는 50·60대 부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필요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김경록 연구소장은 "기존의 은퇴 준비는 자산의 축적을 통해 이뤄졌지만, 매달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은퇴생활비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ATM 장애 처리 고객 위주 개선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 대폭 강화

앞으로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생겨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같게 처리된다. 또 저축은행의 텔레뱅킹을 이용해 대출상환과 이자납부 등을 할 수 있는 등 텔레뱅킹 금융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2일 이런 내용으로 생활민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 장애 발생 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 이에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네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 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납부,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연합뉴스

망고 인기 무섭네 수입량 3년만에 6배 쯤증

열대과일인 망고의 인기가 무섭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망고 수입량은 5882t으로,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지 업체간 수출경쟁으로 국내 망고 가격이 오히려 40%

가량 하락한 것도 망고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롯데마트에서도 수입과일 중 망고의 매출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10위였으나 올해는 4위로 쯤증 뛰어올랐다. 망고 인기에 힘입어 롯데마트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

만산 애플망고(1개) 4500원, 필리핀산 망고(4~5개) 1만 2900원, 태국산 망고(2개) 1만1900원에 판매한다. 안세민 수입과일 상품기획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나나에 이어 망고가 제2의 국민 수입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스퀘어점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캔타, 주스)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